

'82韓國電子展 誌上座談會

*社 會：李 龍 七(本會 展示課長)
 *參席者：李 世 永(宣光商社 貿易部長)
 金 珖 鎬(ITT理事)
 崔 秀 權(泰光電子 營業課長)

本稿는 '82韓國電子展의 特輯으로 꾸민 誌上座談會의 討談 內容이다. 오늘날 電子産業의 育成을 自國의 至上命題로 내 걸고 있는 國策적 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世界10大 電子産業國으로 올라서 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電子産業의 길잡이 역할을 해온「韓國 電子展」을 통해서 꾸준히 新技術과 新製品을 研究 發表해 온 業界의 끈질 긴 노력의 결과이다. 今年으로 13회를 맞는 同電子展을 그동안 관계했던 일선 관계자들의 討談을 통해서 再照明해 보는 것도 유익한 일일 것이다.

(編輯者註)

*社 會：올해로 13회를 맞는 韓國電子展에 참가하는 業體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고마 움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여 러분께서는 다년간 저희 「電子展」에 실무 책임 자로써 참가하신 경험들이 있으신데, 그동안 느 끼신 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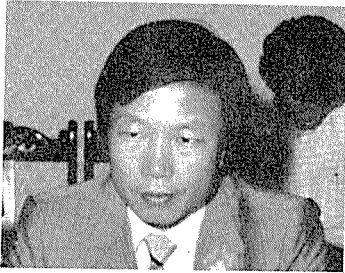
李龍七 課長

*李：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최자측의 한사 람으로 電子展에 참가했지만 올해는 業體의 일 원으로 참가하니까 電子展을 보는 方向이 달라 졌습니다. 먼저 저희 會社의 立場에서 전자전 參加 계획과 제한 進行을 검토하게 되다보니 振 興會의 立場을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이해 수 할 있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컨트롤 메이커로써의 振興會의 역할이 그동안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그 동안 전자전을 보아 오면서 느끼는 점이었지만 많은 會社들이 商品 展示 販賣戰略에 더 세심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걸치레의 호화선전에 치

중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점은 앞으로 지양되 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崔：이부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개 會社들의 호화스런 장치에는 자주보니까 싫증이 나오. 물론 어떤 규제는 없지만 외양에 신경쓰는 전시 풍토는 고 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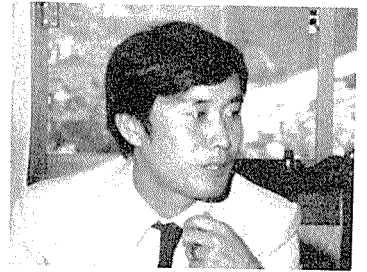
저희는 Audio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음향시설 을 제일로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기간 중이나, 전시가 끝나고도 계 속 얘기 되어지는 소음 문제의 변명을 조금 해



金光鎬 理事



李世永 部長



崔秀權 課長

야 되겠습니다. 음향관계가 사실 가장 어렵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동안 주최측에서 별도로 음향관을 지정해 주고 있지만 同種의 業体끼리 신경전을 벌여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로 방음시설을 갖춘 감상실을 만들어서 관람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로서의 구실을 다 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려운 일은 잦은 분실사고가 생기는 일입니다.

주로 헤드폰이지만 더러 값나가는 것도 상당수 있습니다. 관람자들도 의식구조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일반관람자들의 관람시간을 어떻게 좀더 질서있게 조정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金 :** 저희 ITT는 外國 業体로서 國內에 支社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전람회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ITT는 通信裝備를 비롯 産業用機器를 出品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것은 크게 두가지로 대별됩니다. 그 하나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관람객들의 문제입니다. 振興會에서 그동안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관람객에 관한 적절한 통제를 하곤 있지만, 일반 관람객들은 주로 가정용기기관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은 산업용기기 전시업체는 상당히 산만한 분위기 속에서 전시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本社 外國人 직원들의 불평도 더러 있었습니다. (일동 웃음)

또 하나는 바이어들에 관한 배려가 좀더 세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外國 바이어들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輸出 확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바이어 관람 일정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閉場時間이 너무 이른 것 같습니다. 대개 바이어들은 관심있는 품목에 접하게 되면 두번 세번 방문하여 상담을 추진시키는데 그럴 경우 바이어들은 상담시간을 오래 갖고자 합니다. 그럴때 폐장시간이 조금 더 연장되면 확실한 상담을 통해서 수출오더를 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더 고려해서 실시하는게 어떤지요.

***社會 :** 外國 바이어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外國語는 잘 하는데 製品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만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각 회사에서 전자전에 참가하는 요원들의 자체교육이 더욱 세심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崔 :** 저희 회사는 年間 매출액의 1/4을 전자전에서 따냅니다. 그래서 전자전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큼니다. 그런만큼 지금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 회사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시에 참가하는 요원들의 의식 문제일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전문요원들이 각 전시장에 투입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일의 실마리는 모두 上事(上事)에게 떠맡기는 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저는 그럴 경우에, 각 사원 한사람 한사람에게 主人意識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 자신도 그러한지 반성의 계기로 삼으며 이 말을 합니다만, 어떤 바이어를 만나더라도 主人의식을 가지고 대한다면 言語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

라도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전시의 목적은 결국 商品을 판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럴 경우 한 순간에 좌우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社會 :** 금년에는 이제까지 매년 해오던 新모델 경진대회를 폐지하고 우수상품 특별전시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들을 해 주시죠.

***金 :** 저희는 신모델경진대회에 참가 자격이 없어서 이제까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제도를 통해서 發表되는 製品들을 보니까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점점 先進電子工業國들과 겨룰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외국의 회사에 근무하지만 결국 우리나라 기술을 자랑할건 해야지요(일동웃음). 저희 本社의 경우에는 新技術 개발자나 개발팀에게 자체 내에서 상당한 상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노력의 댓가지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회사를 키우는 밑거름이 되고요. 하물며 국가적인 行事에서의 賞을 탄다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崔 :** 신모델 경진대회에 나오는 제품은 적어도 5~6년은 앞서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든다는 자부심은 기술자들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개발자들에게 주는 시상은 당연하지요. 작년에 振興會의 月刊 電子振興誌에서 신모델경진대회 수상품 개발자들의 원고를 실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진 것 같아요. 月刊誌 誌面을 통해서라도 선전도 좀 해주면 개발기술자들의 사기도 오를 겁니다. (일동웃음)

***社會 :** 전자전의 부대행사도 내년 세미나를 전 시일정 가운데 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작년에 직접 참가하신 李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지요.

***李 :** 저희는 産業用機器를 전시하는데, 저희 회사 機器들을 사용할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전은 국내 개발품의 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선전하고 發表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지요. 또한 정보교환의

창구로써 電子展에 임하는 각 참가회사들의 자세는 참 진지한 것 같아요. 日本은 「신뢰성센터」를 통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고, 그점에 있어서 振興會의 역할이 좀더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진흥회의 큰 行事이며 우리나라 전체를 통털어서 최대의 행사인 電子展의 의미는 매우 큰 것이지요. 이렇게 볼때 세미나에 관해서는, 작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매우 유익했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제 자신 작년의 세미나에 직접 참가한 입장에서 느낀 점인데 생각보다 業體의 호응도가 조금 미진했어요. 그 점은 業體의 관계자들의 소홀한 점도 있었지만 진흥회의 홍보에도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의 질이 높고, 참가자들의 진지한 토의가 깊을 때 그 세미나는 성공한 것이라고 볼때, 금년에는 좀더 기술적이며 조직적인 세미나가 되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韓國의 전자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많은 세미나의 개최는 바람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金 :** 저희는 올해 CC(Computer & Comunication)에 관해서 세미나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이는 저희 회사로보면 하나의 판매전략적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상호 기술의 情報교환이 되지요. 저희 회사의 어떤 부분은 우리나라의 같은 류의 기술을 다소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만은 아닌 공동관심의 표명이지요. 세미나를 통해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만남의 문제가 이룩되지요. 진흥회의 세미나가 하루 속히 더욱 권위있고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읍니다.

***社會 :** 좋은 말씀이십니다. 振興會의 입장에서 정보교환 창구로써의 세미나 역할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電子展에 대해서 깊고 넘어갈 얘기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신데 말씀 감사했습니다. 계속 振興會가 業界의 窓口로써 역할을 다하기 위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전자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